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보아 5집 '메이드 인-'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보아의 일본 정규 5집 '메이드 인 트윈터(20)'가 23일 발표된 일본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보아는 2002년 발매한 첫 앨범부터 이번 5집과 베스트 앨범 등 총 6장의 음반을 연속으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차트 정상에 올려놓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에 앞서 보아는 17일 발표된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도 6장 연속 1위 기록을 달성했다.

오리콘차트는 또 "특히 정규 앨범 5연속 1위 기록은 4연속 1위 기록을 세운 아무로 나미에, 우타다 히카루 등보다 앞선 수치이며 일본 역대 아티스트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하얀거탑 이유 있는 화제 집중

- ① 병원 배경 정치 드라마
- ② 중견 연기자들 재발견
- ③ 日 드라마와 비교 재미

MBC 20부작 의학 드라마 '하얀거탑'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시청률은 15%대에 머물고 있지만 쏟아내고 있는 화제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는 '주몽'을 능가한다. 특히 최근 케이블 TV에서 일본판 '하얀거탑'의 방영을 시작하고 인터넷 서점 등에서 원작소설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사극과 변한 멜로 드라마에 지쳐 있던 시청자들에게 '하얀거탑'은 전혀 색다른 재미를 전해주는 작품이다. 물론 지금까지 '종합병원' '의가형제' 등 의학드라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하얀거탑'은 기존의 의학드라마와는 차별화된 길을 간다.

기존 작품이 병원을 배경으로 한 '멜로'나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휴머니즘'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하얀거탑'은 '병원을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독특한 스토리 라인이다. 현재 명인대학 외과과장직을 둘러싼 의사들의 암투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는 중반을 넘기면서 의사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주인공 장준혁의 복합적인 캐릭터도 눈길을 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아비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시골의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준혁은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을 자아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드라마의 배경은 '병원', 주인공은 '의사'지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것도 극이 주는 매력이다.

▲빛나는 열연='하얀거탑'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다. 주인공 장준혁 역의 김명민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한정 추구하는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주며 인상을 펼치는 최고영역의 이선균, 특별출연 형식으로 등장해 장준혁과 실력을 겨루는 노민국 역의 차인표 등 모두 제역할을 충실히 해준다.

특히 중견 배우들의 등장은 '연기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외과과장직의 이장길, 변희봉, 이희도, 정찬용 등은 완벽한 연기로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무엇보다 선한 이웃집 아저씨 역을 주로 맡았던 김창원의 과격적인 변신은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생애 첫 악역에 도전한 김창원은 위로 치켜뜨는 눈초리와 시니컬한 말투로 아비한 부원장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15억원을 투자해 만든 1천200평의 세트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 없지만 원작에 맞춰 극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만든 '수술 참관실'은 드라마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또 제작진은 실리코너로 만든 시체인 데미와 돼지 갑게기 등을 활용해 수술장면을 찍는 등 장면 장면 공을 들었다.

▲일본판 드라마와 비교하는 재미='하얀거탑'의 원작은 마이니치 신문사 기자 출신인 소설가 아마자키 도요코의 동명소설로 이미 일본에서 두차례 드라마로 만들어져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MBC '하얀거탑'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미 일본판 드라마를 접한 네티즌들이 두 작품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케이블 영화채널 OCN은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11시까지 2003년 일본판 '하얀거탑'을 방영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밴드 동호회 '하멜과 리사' 28일 무료공연

'아쌌마' 이상훈 게스트 출연

광주에서 활동하는 밴드 동호회 '하멜과 리사'가 28일 오후 5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제 4회 정기 공연을 갖는다.

'하멜과 리사'는 밴드들이 함께 사용하는 연습실 이름으로 '하모니, 멜로, 리듬,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청소년과 직장인 밴드 6팀이 출연, 자작곡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밴드의 보컬로 변신한 '아쌌마' 이상훈과 한국 최고의 그룹 '시나위'에서 10년간 드럼을 연주한 신동

현이 참여하고 있는 밴드 'What'이 특별게스트로 출연, 무대를 빛낸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호남예술제에서 1위를 수상한 고등학생 밴드 '포일(For-1)'은 자작곡 'Despoiler'와 'Please Don't Leave me'를 들려주며 직장인과 학생 연합밴드인 '인벤션(Invention)'은 자작곡 'Take Walk', 드림 씨어터의 'Answer lies within' 등을 들려준다.

또 직장인들이 뭉친 '오로라 밴드'는 7080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바람이 멈추어 다오'를 비롯, '사랑하고 싶어' '넌 내게 반했어' 등을 들려주며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유미밴드'는 김아중의 '마리아', 첼리필터의 '내게로 와' 등 록음악을 친숙한 가요로 표



'하멜과 리사'의 공연 모습(위)과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 이상훈씨.

현한 곡들을 선사한다.

그밖에 J-pop과 몽롱한 분위기의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핑거트리(Fingers Tree)', 클래식과 록이 어우러진 음악을 들려주는 '안나밴드'가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마파도 2	11만1천	73만7천
2	미녀는 괴로워	10만 1천400	571만 800
3	허브	8만 95만	1천800
4	데자뷰	6만1천	58만 3천500
5	에라곤	5만7천600	86만 7천800
6	블러드 다이아몬드	4만2천600	33만8천100
7	박물관이 살아 있다	4만2천300	447만 6천200
8	로보트 태권비	4만1천800	23만100
9	데스노트-라스트 네임	2만5천900	54만8천100
10	신나는 동물농장	1만9천	8만2천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주몽	MBC	47.0
2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SBS	25.0
3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4.8
4	무한도전	MBC	24.0
5	연개소문	SBS	22.8
6	누나	MBC	21.9
7	대조영	KBS1	21.3
8	개그콘서트	KBS2	21.1
9	거침없이 하이킥	MBC	19.2
10	긴급출동 SOS 24	SBS	18.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거룩한 계보	드라마
2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코미디
3	일본침몰	액션
4	미션 임파서블3	액션
5	쏘우3	스릴러
6	가문의 부활	코미디
7	괴물	드라마
8	라디오 스타	드라마
9	누가 그녀와 잤을까?	코미디
10	센티널	액션

(자료제공:세네티온)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마리아	김아중
2	흰 눈	이루
3	가거라 사랑아	서문탁
4	잔소리	더너츠
5	사랑-후에	해성&린
6	안녕	KCM
7	안 행복해	정나라
8	에니스타	이효리
9	더티 캐시	빅뱅
10	볼때기 사랑	엘시더맥스

(자료제공:빅스뮤직)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고정지 강사

전남고시학원

공인중개사 특강

소수정예반

전남고시학원

공인중개사

2-1 특강반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전통 침.뜸

공기강화

무료 공기강화 설명회 1월 26일(금) 13:00

중국문화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월 1일

새롬행정고시학원